

약속의 땅 II.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진 인생 그릇에 담으시는 이유 (깨어짐과 두려움의 관계)

1. 깨어진 그릇

김태훈 선교사의 이야기, ‘깨어진 그릇’. 많은 감동이 있다. 김 선교사는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과 아산 병원에서 일하던 중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그의 헌신적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고 한다.

“젊은 의사로 한국에서의 역할도 적지 않으니, 교수가 된 후에 커리어를 더 쌓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주변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전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되고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선교를 하러 나갈 영성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직했어요. / *아내 : 다들 자리를 잡은 후에 큰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이런 그의 고백이 담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 (규장출판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미래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즈음,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외과의사로서 사망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고 스스로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릇처럼 느껴져 눈물로 기도하던 그에게 주님은, “네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고, 작지만 전부를 드린 네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티오피아를 더욱 사랑하며 그 땅을 위해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그는, 깨어진 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귀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울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헌신하니 역시 다르네. 멋있다’라고 여긴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는 나와 다른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하나 더 깊이 들어간다. 한 순간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이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한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한 선교사님이 사역지에서 1년도 되지 않아 파킨슨병을 얻었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온전한 그릇, 완벽히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육신을 깨어진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가?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이 시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주어진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김 선교사님을 깨어짐 때문에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엄청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만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 부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자신하는 부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2) 작지만 전부를 드린 네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김 선교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작지만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과부의 두 렵돈과 같다.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것이다. 중심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것이다. 영적인 원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질은 본질에 관한 것이다. 많은 군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이 아니다. 작지만 전부의 삶을 드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작지만 ‘전부’를 드린 인생이다. 왜 작지만 전부를 드린 인생을 받으시는가? 작은 것을 드린, 두 렵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만약 많이 충분히 드렸다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의’이다. 그런데 작지만 전부를 드린 사람은 ‘이것 말고 더 드릴 것이 없는데, 이것이라도 받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겸손한 마음이다. 바로 이것이 작지만 전부를 드린 마음 안에 있는 비밀이다.

(3)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

선교지에 헌신했는데 파킨슨병을 얻었다. 어떤 마음이겠는가? 그 순간 멈출 수 있다.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내 몸을 가누기 어려운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의료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보통의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 놀라운 사실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부르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책임을 지신다. ‘믿음’에 관한 영역이다.

ㄱ) **다윗** :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졌다.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불평한 1세대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신다.

ㄷ) **복음서의 제자들** :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신다.

ㄹ) **사도행전의 제자들** :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결국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

ㄱ) **여호수아** :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보라. 요단강을 건넌 후 마주하게 된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할례를 행하신다. 걸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한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진다.

ㄴ) **엘리아** : 왕상 19장의 엘리아는 두려움과 번 아웃 증후군과 같은 육신, 감정 모두의 탈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아를 회복 시키시고, हो렙산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신다.

공동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다. 사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속은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앞으로 전진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2. 깨어진 그릇 안에 있는 비밀

왜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다. 깨어짐은 아픔이다. 상처이다. 왜 바벨탑을 높게 올렸는가? 홍수의 상처 때문이다. 바벨탑을 올리면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홀어짐'에 대한 불안이었다.

[창세기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홀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깨어짐은 인간의 존재적 불안이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깨어짐은 아픔이다. 아담은 깨어짐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죄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두려움이겠는가? 그래서 깨어짐은 인간의 연약함 안에 있는 존재적 두려움이다. 이 원죄의 영향력 안에 있던 인간이 만든 두려움의 탈출 방법은 바벨탑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 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진다. 해결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만든 세상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인간의 힘으로 재편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깨어짐은 곧바로 퇴출이며 죽음이다. 패자와 깨어진 자를 주목하지 하지 않는다. 능력 없는 자를 주목하지 않는다. 힘이 없어 젊은 사자에게 왕권을 빼앗긴 퇴물의 사자의 쓸쓸함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깨어짐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이다.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이다.

[이사야 6:5-8]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연약한 인간의 반응은 놀랍다가 아니다.(5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간은 자신의 본연의 정체성을 본다. 그 정체성은 잘나고, 화려하고, 능력있는 존재가 아닌 깨어진 부정한 그릇을 보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본연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이 나를 정확하게 본 순간이다. 그때 인간은 고백한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진 그릇인지 알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고치신다 (6-7절). 놀라운 순간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아의 부정함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가? 바로 깨어진 그릇이다.

불안하고 두려운가? 그것은 깨어진 그릇에서 오는 나의 연약함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는 순간이다. "하나님 나는 부정하고, 자신 없고, 더럽습니다. 연약합니다. 내 의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이 존재적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경험한 깨어진 그릇 이사야는 고백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고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그리고 헌신한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깨어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깨어진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깨어짐이다. 깨어짐을 넘어 가루가 되어야 한다.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이 다시 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나는 온전하다. 강력하다.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연약한 깨어짐의 묶임에서 자유하자.

3. 애통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풀어지는 시대이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깨어진 그릇,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한 마음이 되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깨어진 애통함 안에 있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라. 할렐루야!